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2. 28.(목) 총 10매(본문4, 참고6)	
담당 부서	지역정책과	담당 자	•과장 손덕환, 서기관 이경재, 주무관 한수중 •☎ (044) 201-3665, 3664
보도일시		2017년 12월 2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8.(목) 15:00 이후 보도 가능	

강원·경남·전북·전남·충남 5개 도, 지역개발 청사진 완성 지역 특색 살린 436건 사업 선정...향후 10년간 21조 원 투자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'국토부')는 강원도·경상남도·전라북도·전라남도·충청남도 이상 5개 도의 향후 10년(2018년~2027년)간의 지역 발전 방향과 개발 사업을 담은 '발전촉진형·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'을 국토정책위원회(위원장: 국무총리)의 심의를 거쳐 28일 최종 승인했다.
 - 지역개발계획은 '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*(이하 '지역개발지원법')에 근거하여 도(道) 별 낙후·거점지역의 종합·체계적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, 지역별 발전 목표와 전략,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담고 있다.
 - * 기존 5종의 지역개발 제도(신발전지역, 개발촉진지구, 특정지역, 지역종합개발지구, 광역개발권)를 10년 단위의 '지역개발계획'으로 통합
 - ** 계획에 반영되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, 재정 지원, 세제·부담금 감면, 인허가 의제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음
 - 5개 도(道)는 지역개발 계획안을 각각 수립하여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(17. 2.), 국토부는 실현 가능성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2월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하였다.
 - * 경상북도·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기 승인('16. 12.), 거점육성형 계획은 '18년 승인 계획

□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 전략 수립과 특화 사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.

○ 특히, 철저한 실현 가능성 검증을 추진하여 타당성 높은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, 민간투자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들의 민자 유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○ 이번 계획에는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5개 도에서 총 436건(기존 210건, 신규 226건), 약 21조 원(기존 13조 2천억 원, 신규 7조 7천억 원)의 사업이 최종 반영되었다.

* 총 투자 규모 21조 원 중 민간투자가 약 13조 9천억 원(66.4%), 국비가 3조 4천억 원(16.4%), 지방비가 3조 6천억 원(17.2%)

□ 이번 계획의 도(道) 별 비전과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.

① (강 원) '약동하는 행복강원' ★ 87건, 8조 4천억 원

○ 속초항, 낙산사, 오죽헌과 같은 강원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역사 자원 등 기존 관광지를 정비하여 관광여건 개선을 추진한다.

- 동해안의 기존 관광지와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신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관광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강원남부권의 대관령, 옛 탄광문화 관광자원, 동굴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고원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.

② (경 남) '더불어 성장하는 웰니스 경남' ★ 74건, 2조 2천억 원

○ 황매산, 우포늪, 남해안 등 경남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로 관광 거점의 기틀을 마련한다.

- 아울러 가야 문화권 등 지역의 역사·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·활용하고, 주변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산삼, 온천, 약초 등 지역 특산물을 토대로 한 항노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도 창출할 예정이다.

③ (전 북) '환황해 거점! 전라북도' ★ 45건, 1조 2천억 원

○ 내장산, 섬진강, 서해안 등 전북의 주요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농·식품을 체험하는 관광기반을 구축하고,

- 전북 '토탈관광'과 접목하여 14개 시·군의 대표 관광지(전주 한옥 마을 등)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에 파급·확산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장류, 홍삼, 치즈 등 지역 특산물의 발효·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 창출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.

④ (전 남) '활기가 넘치는 생명의 땅,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'

★ 131건, 4조 8천억 원

○ 함평 축산 등 지역 특화 선도산업 개발과 대도시 근교권 배후 산업 육성 및 내륙 교통시설 연계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,

○ 영산강, 남도 순례길 등 전남지역의 우수한 역사·문화·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복합해양관광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⑤ (충 남) '행복한 성장지대, 충남' ★ 99건, 4조 3천억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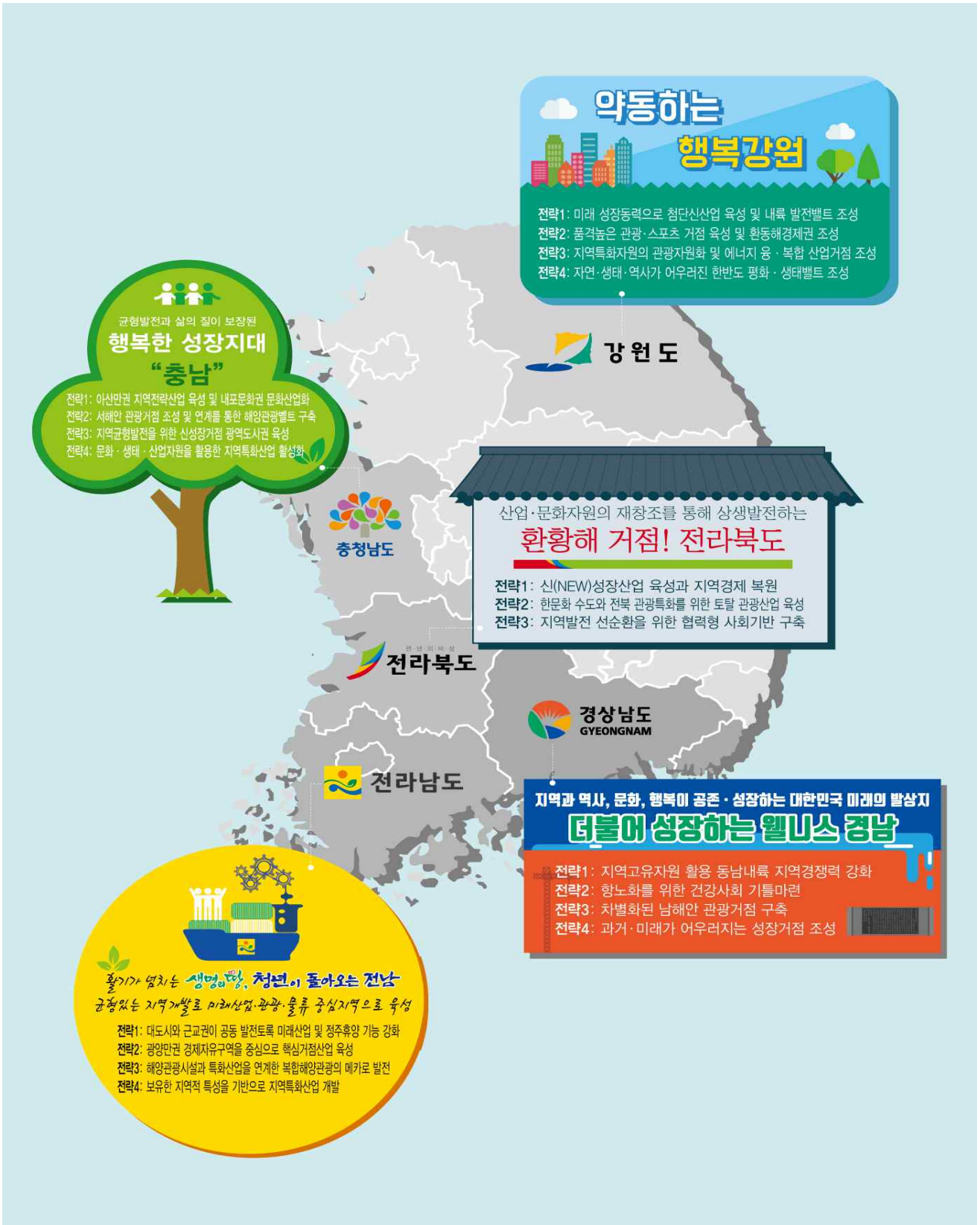
○ 기간산업(석유화학, 철강, 디스플레이, 자동차) 집적 지역인 북부권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성과의 지역 내 착근 유도를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,

- 보령-안면 연륙교 개통에 따른 서해안 최대 해양 관광벨트 구축 및 풍부한 문화자원(백제·유교·내포·천주교)을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한다.
 - 이와 함께,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, 케이티엑스(KTX) 공주 역세권 등 발전 잠재력이 큰 사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내 상생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- 국토부 관계자는 “지역 간 연계·협력에 기반을 둔 ‘광역관광루트’ 발굴을 통해 관광지의 경쟁력과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지역 내 인구 감소를 외부 체류인구 증가로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.”라며,
- “이번 계획에 각 도별 광역관광루트 안을 포함하였고, 향후 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- 또한, “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계획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더욱 중요한 만큼,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사업의 효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모니터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.”라며,
- “사업 전 단계에 지자체·주민·전문가·문화예술인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‘지역주도 협력체계’를 구축하고, 특색 있는 공간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‘디자인 관리체계’ 도입 등을 통해 품격 있는 지역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이경재 서기관(☎ 044-201-3665) 또는 한수증 주무관
 (☎ 044-201-36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《 5개 도 지역개발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》



1. 강원도 지역개발계획

□ (개 요) 강원도 발전촉진형·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(2018~202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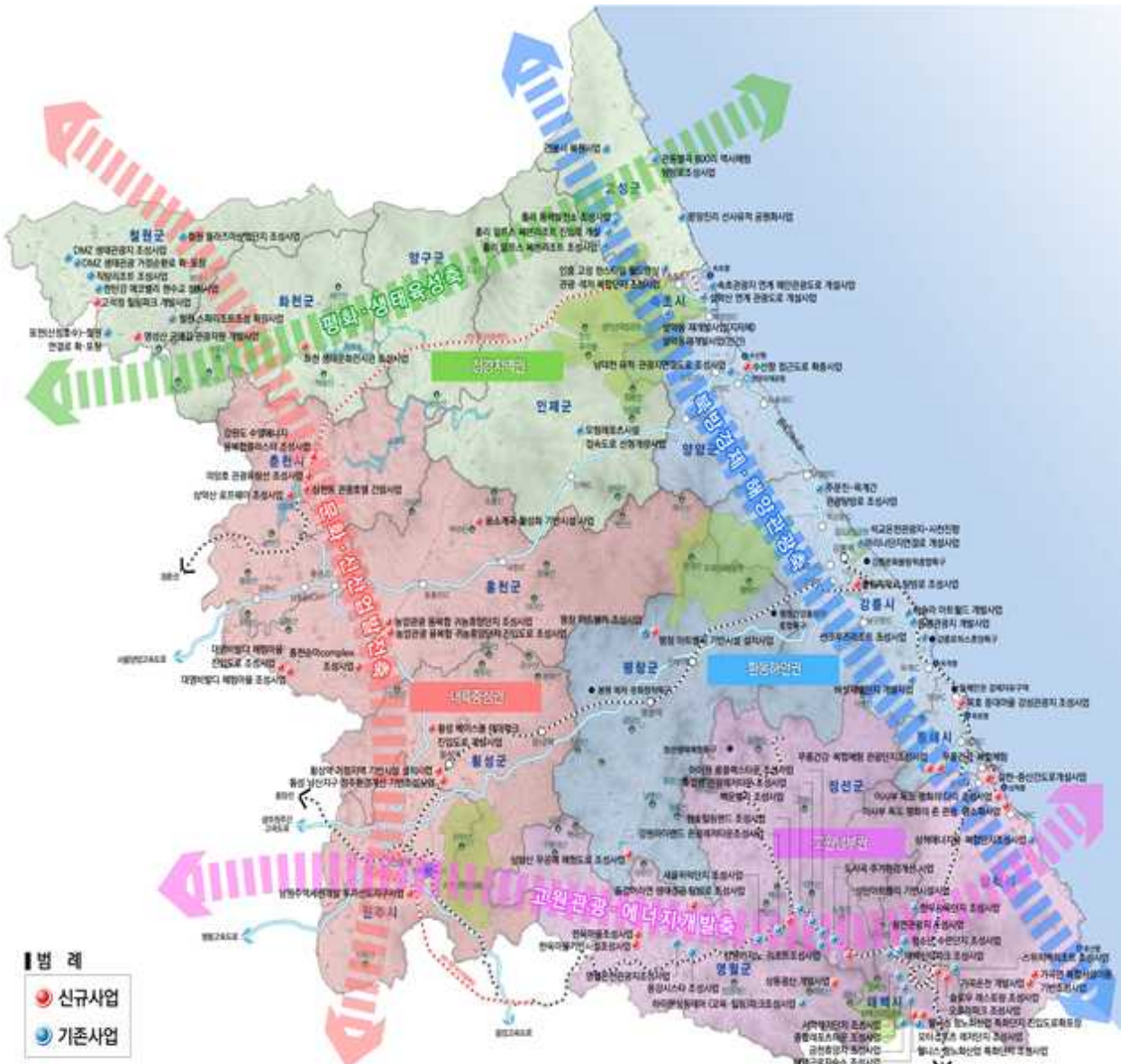
○ (대상지역) 성장촉진지역 7개, 접경지역 6개, 거점지역 5개 시·군

- * (성촉) 태백, 삼척, 홍천, 횡성, 영월, 평창, 양양
- * (접경) 춘천,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, 고성
- * (거점) 원주, 강릉, 동해, 속초, 정선

○ (비 전) “약동하는 행복 강원”

○ (투자규모) 87건(기존50/신규37), 8.4조원(국비 0.5/지방비 0.5/민간 7.4)

《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총괄도면 》



2.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

□ (개 요) 경상남도 발전촉진형·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(2018~2027)

○ (대상지역) 성장촉진지역 10개 시·군 및 거점지역 8개 시·군

* (성촉) 밀양, 의령, 창녕, 고성, 남해, 하동, 산청, 함양, 거창, 합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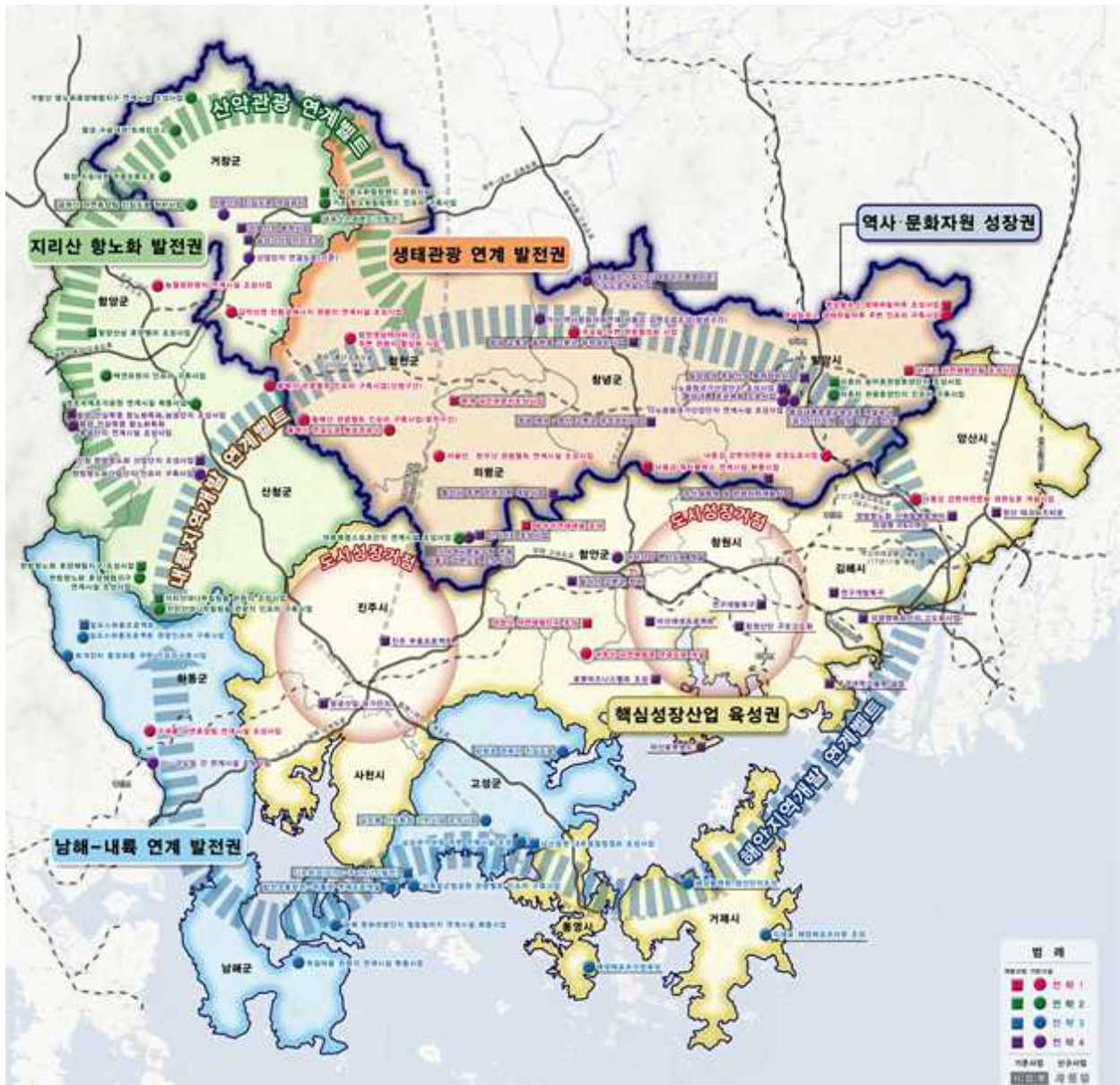
* (거점) 창원, 진주, 통영, 사천, 김해, 거제, 양산, 함안

○ (비 전) “더불어 성장하는 웰니스 경남”

- 자연과 역사, 문화, 행복이 공존·성장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발상지 -

○ (투자규모) 74건(기존33/신규41), 2.2조원(국비 0.5/지방비 0.6/민간 1.1)

《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총괄도면 》



3.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

□ (개 요) 전라북도 발전촉진형·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(2018~2027)

○ (대상지역) 성장촉진지역 10개 시·군 및 거점지역 4개 시·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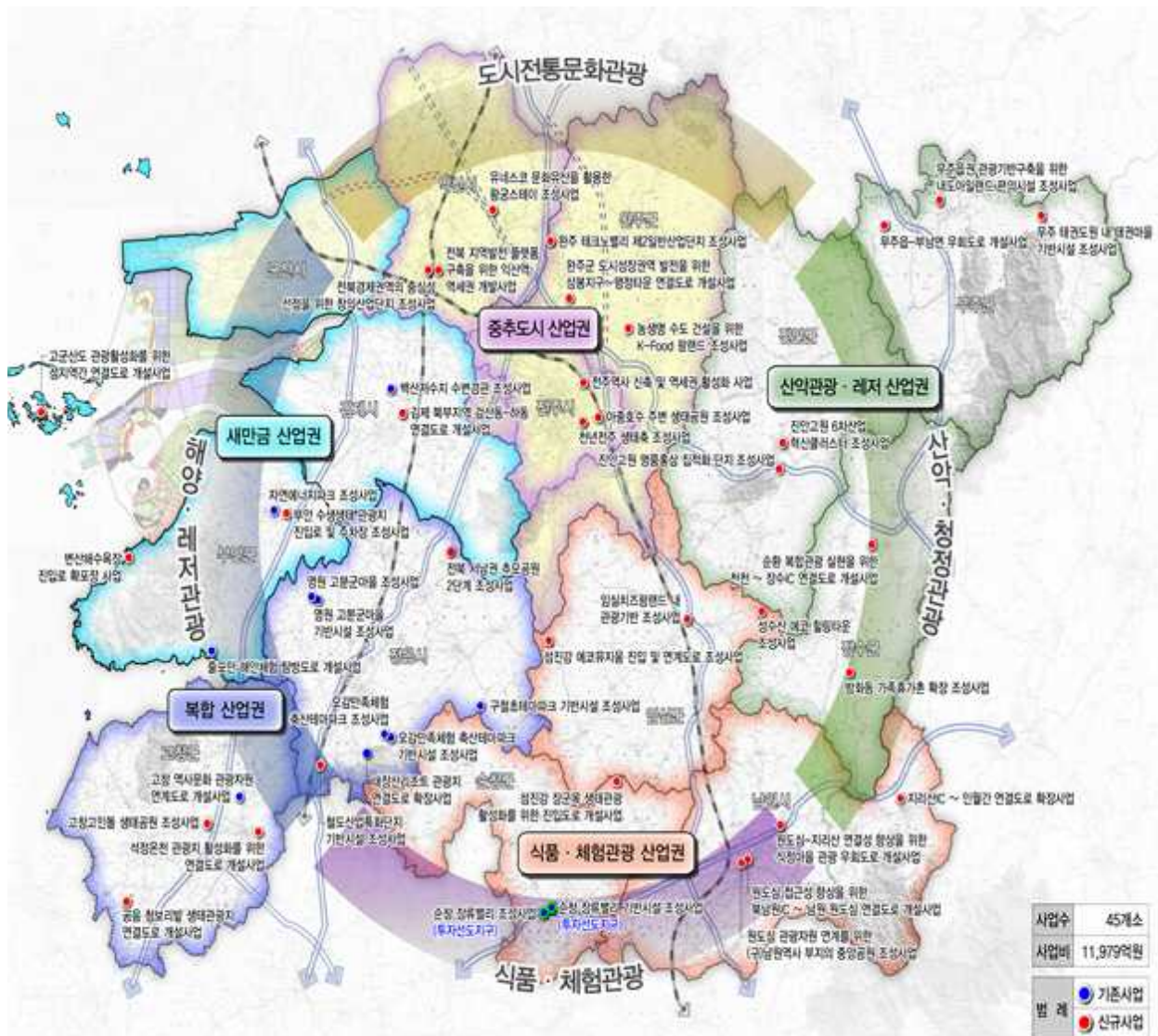
- * (성촉) 정읍, 남원, 김제, 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, 고창, 부안
- * (거점) 전주, 군산, 인산, 완주

○ (비 전) “환황해 거점! 전라북도”

- 산업·문화자원의 재창조를 통해 상생발전 유도 -

○ (투자규모) 45건(기존12/신규33), 1.2조원(국비 0.4/지방비 0.3/민간 0.5)

《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 총괄도면 》



4.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

□ (개 요) 전라남도 발전촉진형·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(2018~202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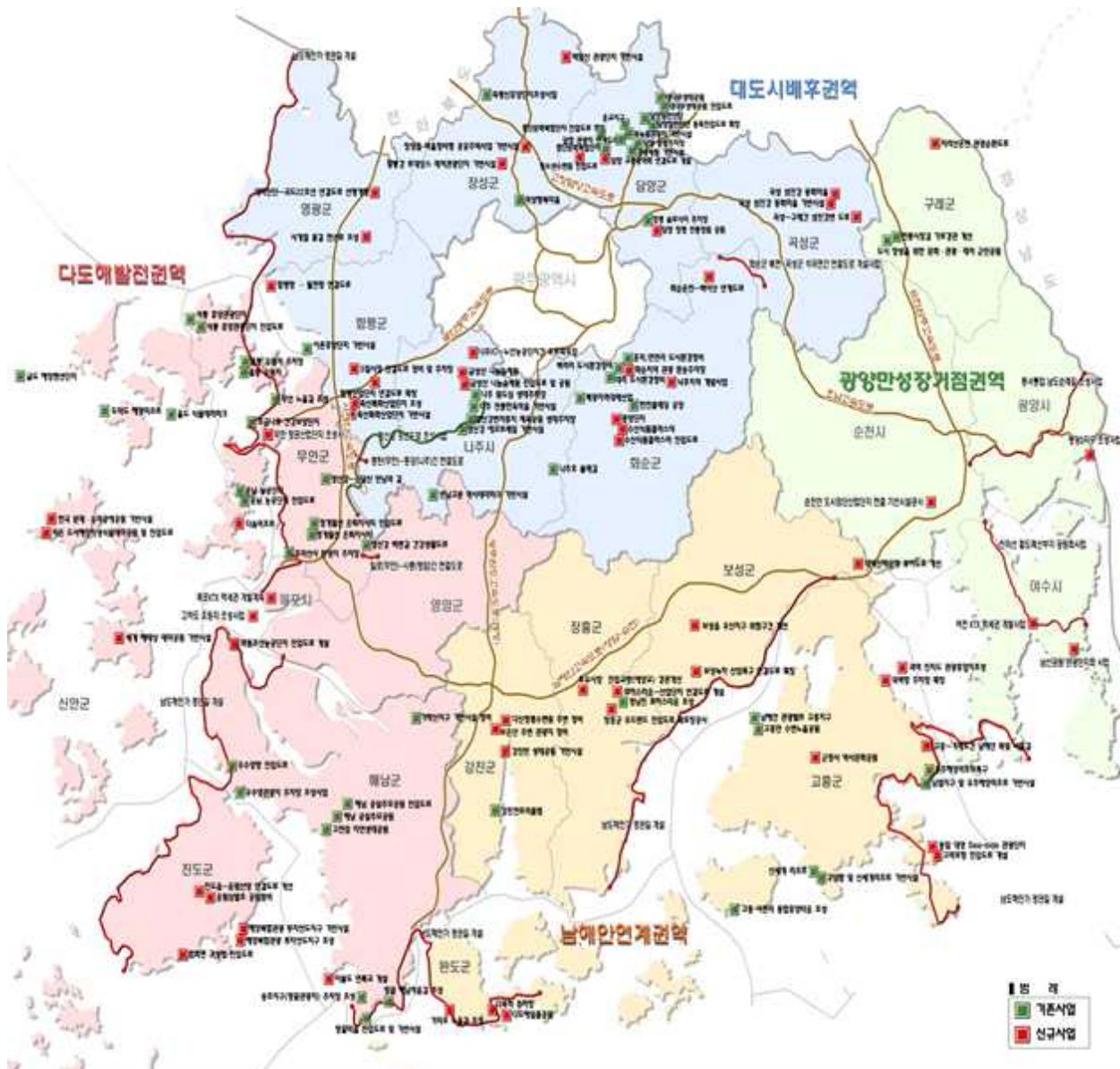
○ (대상지역) 성장촉진지역 16개 시·군 및 거점지역 6개 시·군

* (성촉) 나주, 담양, 곡성, 구례, 고흥, 보성, 화순, 장흥, 강진, 해남, 함평, 영광, 장성, 완도, 진도, 신안 (거점) 목포, 영암, 무안, 순천, 광양, 여수

○ (비 전) “활기가 넘치는 생명의 땅,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”

○ (투자규모) 131건(기존65/신규66), 4.8조원(국비 1.0/지방비 1.0/민간 2.8)

《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 총괄도면 》



5.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

□ (개 요) 충청남도 발전촉진형·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(2018~2027)

○ (대상지역) 성장촉진지역 6개 시·군 및 거점지역 9개 시·군

* (성촉) 금산, 부여, 서천, 청양, 예산, 태안

* (거점) 천안, 공주, 보령, 아산, 서산, 논산, 계룡, 당진, 홍성

○ (비 전) “행복한 성장지대, 충남”

- 균형발전과 삶의 질이 보장된 행복한 충남 -

○ (투자규모) 99건(기존50/신규49), 4.3조원(국비 1.1/지방비 1.1/민간 2.1)

《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총괄도면 》

